

drawing 13

Drawing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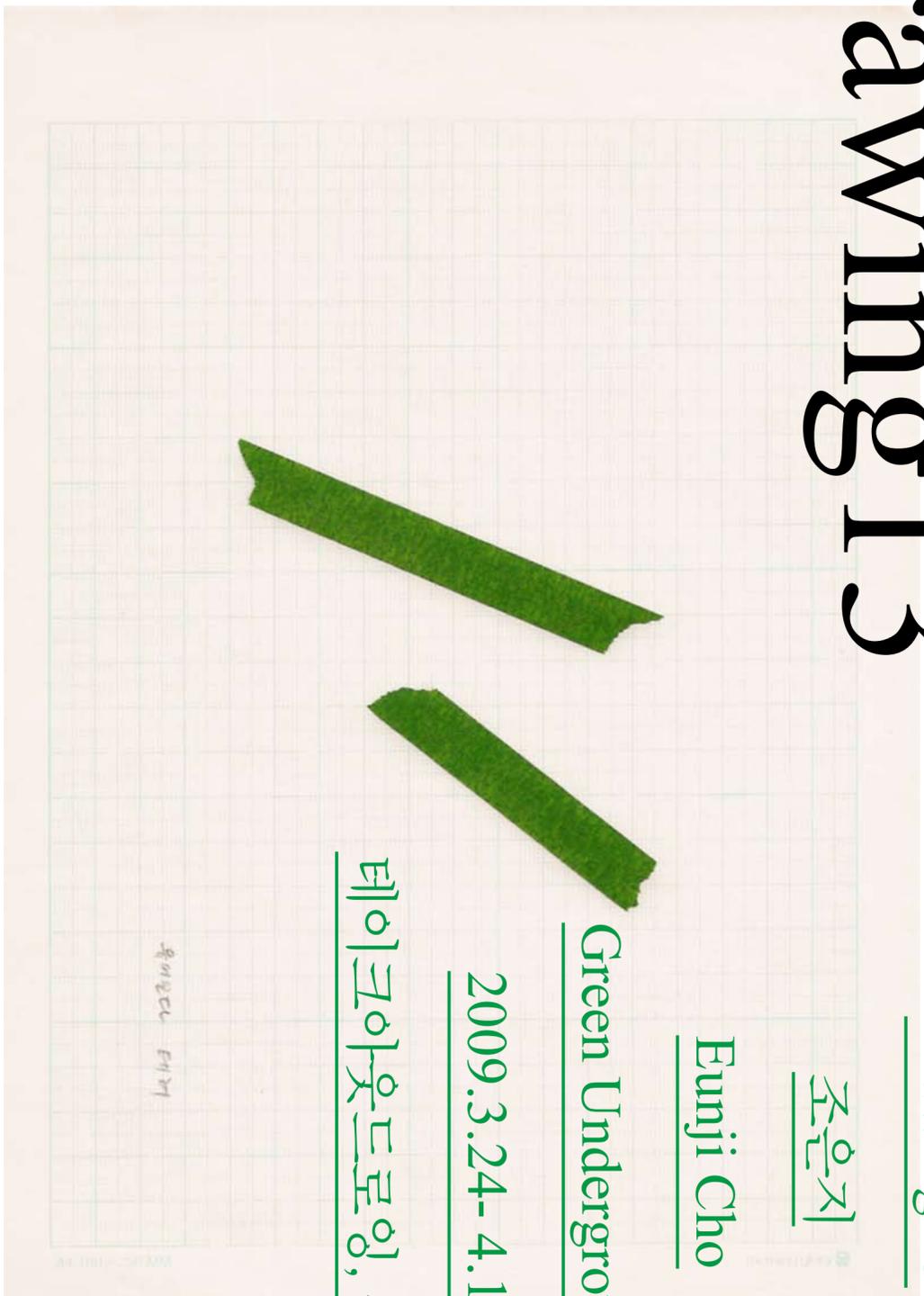
조은지

Eunji Cho

Green Underground

2009.3.24-4.17

테이크아웃드로잉, 성북동



www.
takeoutdrawing.com
takeoutdrawing
@hanmail.net

테이크아웃드로잉
아르코
110-766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30
t. 02 3676 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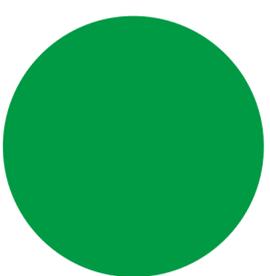
테이크아웃드로잉
성북동
136-823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31
t. 02 745 9731

office
110-809
서울 종로구 동숭동
130-18
t. 02 747 1318
f. 02 6052 0606

발행
테이크아웃드로잉

takeout
drawing
news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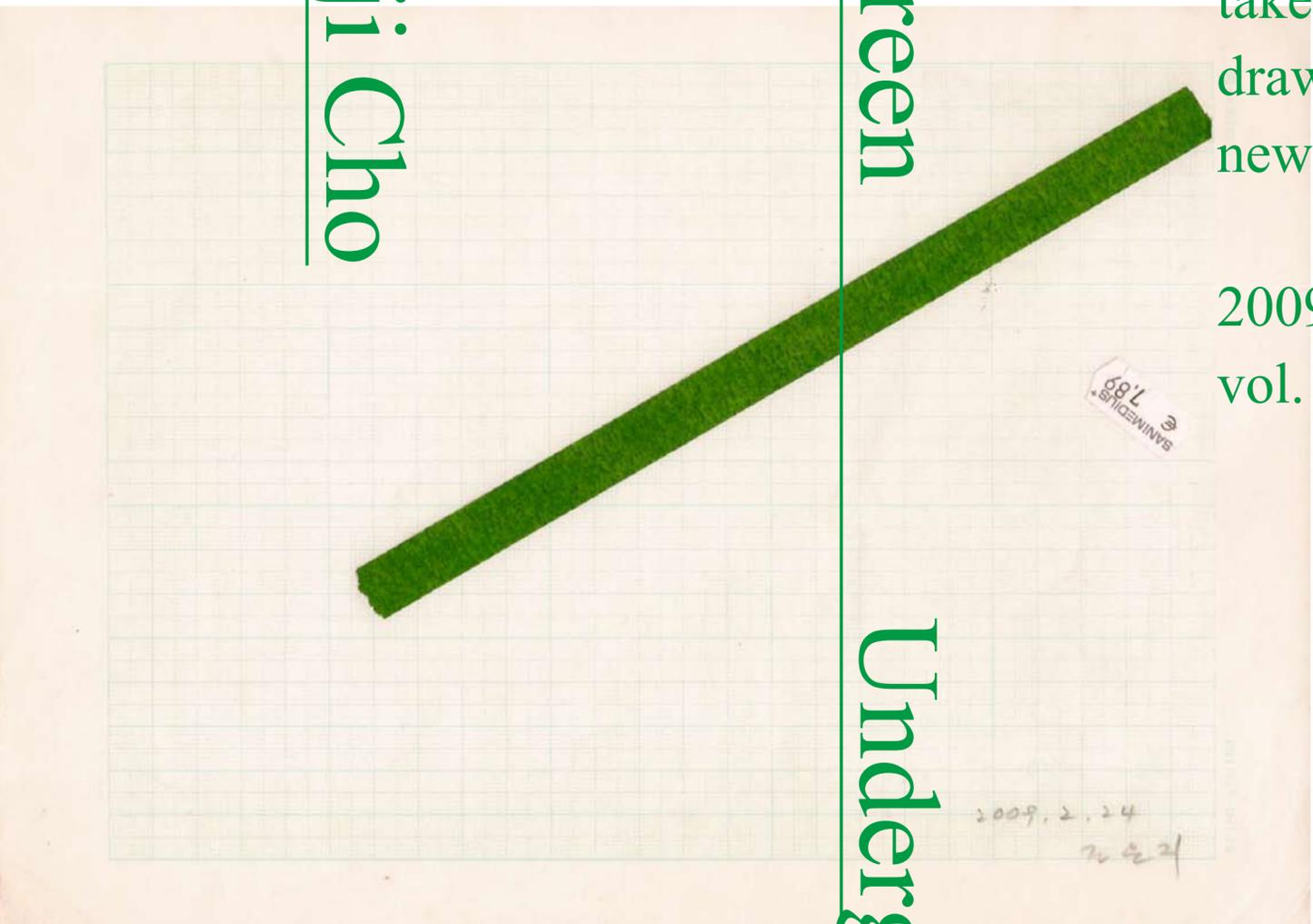
2009. 3
vol. 11



Green

Underground

Eunji Cho



takeout drawing

<div><div></div>테이크아웃드로잉은</div>	<div><div></div>Drawing 13</div>
<div><div></div>제철을 맞은 신선한 문화적 재료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 빚어낸 결실을 'takeout' 할 수 있는 다목적 유기(농)문화공간입니다.</div>	<div><div></div>조은지</div> <div><div></div>Eumji Cho</div>

구매금액은 유기농법에 의해 자연의 순리대로 농산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작업을 발표하는 예술가들, 그리고 실험적이고 새로운 드로잉에 도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div><div></div>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엄청난 양의 Green을 소비해 오고 있다.</div>	<div><div></div>GREEN UNDERGROUND</div>
--	---

<div><div></div>녹색당</div>	<div><div></div>그린벨트</div>
<div><div></div>녹색평론</div>	<div><div></div>녹색성장</div>
<div><div></div>나무</div>	<div><div></div>풀</div>
<div><div></div>평화</div>	<div><div></div>녹색연합</div>
<div><div></div>암엘트</div>	<div><div></div>그린카드</div>
<div><div></div>비상구</div>	<div><div></div>녹십자</div>
<div><div></div>새마을운동</div>	<div><div></div>소주</div>
<div><div></div>소주</div>	<div><div></div>녹색경제</div>

takeout

drawing

newspaper

2009. 3

vol.11

<div><div></div>김의 아스팔트를 파보면 알 것이다. 조금만 파도 Green이 보이기 시작하고 공사 때문에 조금 더 깊이 파 내려가야 한다면 온통 Green의 지구 때문에 인류들은 Green으로 물든 채로 땅 위로 나타나야 하기 인수이다.</div>	<div><div></div>이렇게 Green으로 물든 후에는 다시 본래의 색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동안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경험하여 왔으므로 잘 알 것이다.</div>
--	--

<div><div></div>한번 Green이 된 후에는 본래의 색으로 되돌아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는 Green에서 어떤 강한 절대적 안주를 맛보았다고 추측되는 사람들이 그저 Green으로 남아 있기를 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듯 하다.</div>	<div><div></div>이 지구는 더욱더 Green화가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은 온 그 본래의 형체를 잃고 더욱 Green으로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div> <div><div></div>...</div>
<div><div></div>우리나라에서의 Green화는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만연하게 되었는데 이때 넓게 퍼진 Green은 환경에 까지 흘러 들어 이를 식수로 사용하던 가정의 많은 아기들이 Green화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성인이 되어 자신의 Green화를 인식하고 그것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게 본래의 색을 다시 찾았지만 그 이후로는 몸과 정신적 피로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가 있다.</div>	

<div><div></div>64년대 생 작가 정서영은 Green화에서 벗어난 한</div>	<div><div></div></div>
--	---



사람들이 후 세대가 지나치게 예민해져 상처를 입을 경우 남들의 4배정도의 고통을 느낀다고 호소하고 있다. 독일과 한국의 의사들을 찾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사들은 Green화를 벗어난 후유증은 치료방법이 특별히 있지 않다고 한다.

또 65년생의 작가이자 큐레이터인 박원영씨는 몸예 초록색 이기가 생겨 병원을 찾았으나 그린화로 인한 습진으로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한다.

<div><div></div>다른 한 예로 삼청동쪽 골든애플 갤러리의 큐레이터이자, 여성 활동가로 활동중인 72년생 양 수진씨는 Green화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인 케이스로 실생활에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발휘한다.</div>	<div><div></div>Green Growth</div> <div><div></div>Tree</div>
---	---

Grass**Peace****Green Union****Absinthe****Green Card****Exit****Green Cross****Saemaul Movement****Soju****Green Economics**

다음을 지구를 계속 파내려 가던 중 솟아오르는 Green에 소리 없는 환희의 외침과 함께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던, 전직 공사장 인부 표인구씨가 남긴 편지이다. 인터넷에서 발췌하였다.

<div><div></div>누구나 한번쯤 가져보았을 연애 사진을 Green으로 표방해 본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div>	<div><div></div>This becomes obvious if one excavates any pavement. Initially, a limited amount of 'Green' is visible to the naked eye. If digging continues, the 'Green' color of the earth is smeared and deposited on the person involved. Construction workers have been reported as emerging 'green colored creatures' from their workplace. Once a subject is 'dipped' into or exposed to 'Green', the victim will struggle</div>
--	--

<div><div></div>장수_ 절대적 안주에 대한 변명이 아닌</div>	<div><div></div>누구나 한번쯤 가져보았을 연애 사진을 Green으로 표방해 본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div>
<div><div></div>어떤 사람한테는 혼자서</div>	<div><div></div>누구나 한번쯤 가져보았을 연애 사진을 Green으로 표방해 본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div>
<div><div></div>저 심해 Green 어두운 곳 해저 9만리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div>	<div><div></div>누구나 한번쯤 가져보았을 연애 사진을 Green으로 표방해 본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div>
<div><div></div>때로는 육체를 망각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div>	<div><div></div>누구나 한번쯤 가져보았을 연애 사진을 Green으로 표방해 본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div>
<div><div></div>그냥 삶의 리듬에 맞게 땅카 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div>	<div><div></div>누구나 한번쯤 가져보았을 연애 사진을 Green으로 표방해 본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div>
<div><div></div>그냥 몸을 늘어뜨리아 하고 그렇게 알게 되는</div>	<div><div></div>누구나 한번쯤 가져보았을 연애 사진을 Green으로 표방해 본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div>
<div><div></div>시간을 느리게 느리게 매치하여</div>	<div><div></div>누구나 한번쯤 가져보았을 연애 사진을 Green으로 표방해 본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div>

<div><div></div>공허함을 표방하고</div>	<div><div></div>to revert to his or her original color. This is an experience known to us from everyday life.</div>
<div><div></div>뇌를 저 어두운 심해Green에 쳐 박고서</div>	<div><div></div>It appears that those affected do not return to their original color once they become 'green'. It is supposed that 'Being Green' or 'Living in Green' gives those unfortunates an ultimate comfort in life. Therefore those involved tend to stay as being in Green. ...</div>

<div><div></div>이것은 절대적 안주에 대한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div>	<div><div></div>In South Korea, 'Greenisation' spread nationwide during the 1960s and 1970s. At a certain point, overflow green leached away into the Han River. Any communities which relied on the Han River as their main water supply were instantly exposed to Greenisation.</div>
---	--

<div><div></div>작가소개</div>	<div><div></div>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쟁적인 교육제도 속에서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 해비메탈을 좋아하는 소녀였으나 어느새 깊숙이 자리잡은 경쟁적 사고방식은, 대학은 붙어 놓고 보자는 서바이벌형 인간이 되게 하였다. 대학 입학 후, 해보지 못한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 탐닉하다가 어떤 개인적 이유로 영국 유학 길에 올랐다. 테마침 아시아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생겨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 돈의 일부로 프리다 가방과 구제신발을 사서 가난한 이트스쿨 학생들의 이상한 눈길을 받았으나 개의치 않았다. 가르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생각을 주관적으로 표출하기를 바라는 학교의 풍토로 인해 (처음으로) 공부를 하고 작업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작가 생활을 해오고 있다. 작가생활을 시작한 이 후 다시 프리다 가방과 구제 신발을 구입한 적이 없으며 그보다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밥 먹기에 힘쓰고 있다.</div>
---	--

해외에 전이나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작업만 보내기 보다는 직접 가서 퍼포먼스를 하고 그 곳의 음식도 먹으며 사람들 보는 것을 좋아한다. 채식을 하고 누렁이 살리기 운동본부 회원이다.

<div><div></div>Green Underground</div>	<div><div></div>A further reported effect of Greenisation is vulnerability to eczema. Another artist and curator, Hanyoung Park, informed us that he could not find a proper treatment for the moss in his body, brought about by Greenisation.</div>
---	--

<div><div></div>Green Party</div>	<div><div></div>A contrasting case is that of Sujin Yang (b. 1972, Feminist Activist and Curator in Golden Apple Gallery in Samchungdong). She accepted 'Greenisation' pro-actively. It appears to affect her everyday life imparting an almost un-natural energy.</div>
---	---

<div><div></div>박원주</div>	<div><div></div>Green Growth</div>
<div><div></div>Wonjoou Park</div>	<div><div></div>Tree</div>
<div><div></div>별매달</div>	<div><div></div>Grass</div>
<div><div></div>Star Delivery</div>	<div><div></div>Peace</div>
<div><div></div>2009. 5.1- 5.30</div>	<div><div></div>Green Union</div>

There has been a witness statement from the owner of Hong-ok Supermarket (which is located in the vicinity of the Golden Apple Gallery). The statement alleges that Yang has Green radiation beaming out from her eyes. The statement also claims that when Yang is taking a rest break, the effects of Greenisation become more visible: "I have seen her unusually stretched feet when Yang took a nap on the sofa."

The following letter is written by Pyo In Goo, a former construction worker employed in road repairs. It was reported that he disappeared with a soundless scream of joy when he was engulfed in an eruption of Green, while he was involved in a deep excavation. This literature was found on the internet.

* If the reader replaces the word Green with a commonplace understanding of love, it may aid in understanding.

<div><div></div>Submarine (This is not an excuse for ultimate comfort) _Pyo In Goo</div>	<div><div></div>This becomes obvious if one excavates any pavement. Initially, a limited amount of 'Green' is visible to the naked eye. If digging continues, the 'Green' color of the earth is smeared and deposited on the person involved. Construction workers have been reported as emerging 'green colored creatures' from their workplace. Once a subject is 'dipped' into or exposed to 'Green', the victim will struggle</div>
<div><div></div>For some, it is necessary to have some time alone in deep dark Green sea in the deep place the Green nine fathoms</div>	<div><div></div>누구나 한번쯤 가져보았을 연애 사진을 Green으로 표방해 본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div>
<div><div></div>Sometimes it makes forget about the body</div>	<div><div></div>누구나 한번쯤 가져보았을 연애 사진을 Green으로 표방해 본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div>
<div><div></div>Not because of not knowing oblivion as rhythms of life go by</div>	<div><div></div>누구나 한번쯤 가져보았을 연애 사진을 Green으로 표방해 본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div>
<div><div></div>Just because relax its body stretch the breath slowly locate the time slowly and slowly</div>	<div><div></div>누구나 한번쯤 가져보았을 연애 사진을 Green으로 표방해 본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div>

<div><div></div>An advocate for emptiness</div>	<div><div></div>to revert to his or her original color. This is an experience known to us from everyday life.</div>
<div><div></div>Place the head into the deep and dark, down there in the 'Green'</div>	<div><div></div>It appears that those affected do not return to their original color once they become 'green'. It is supposed that 'Being Green' or 'Living in Green' gives those unfortunates an ultimate comfort in life. Therefore those involved tend to stay as being in Green. ...</div>

<div><div></div>Wandering around the Green nine fathoms</div>	<div><div></div>In South Korea, 'Greenisation' spread nationwide during the 1960s and 1970s. At a certain point, overflow green leached away into the Han River. Any communities which relied on the Han River as their main water supply were instantly exposed to Greenisation.</div>
<div><div></div>This is not an excuse for ultimate comfort</div>	<div><div></div>It appears that those affected do not return to their original color once they become 'green'. It is supposed that 'Being Green' or 'Living in Green' gives those unfortunates an ultimate comfort in life. Therefore those involved tend to stay as being in Green. ...</div>

<div><div></div>About the artist</div>	<div><div></div>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쟁적인 교육제도 속에서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 해비메탈을 좋아하는 소녀였으나 어느새 깊숙이 자리잡은 경쟁적 사고방식은, 대학은 붙어 놓고 보자는 서바이벌형 인간이 되게 하였다. 대학 입학 후, 해보지 못한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 탐닉하다가 어떤 개인적 이유로 영국 유학 길에 올랐다. 테마침 아시아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생겨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 돈의 일부로 프리다 가방과 구제신발을 사서 가난한 이트스쿨 학생들의 이상한 눈길을 받았으나 개의치 않았다. 가르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생각을 주관적으로 표출하기를 바라는 학교의 풍토로 인해 (처음으로) 공부를 하고 작업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작가 생활을 해오고 있다. 작가생활을 시작한 이 후 다시 프리다 가방과 구제 신발을 구입한 적이 없으며 그보다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밥 먹기에 힘쓰고 있다.</div>
--	--

<div><div></div>Thanks to: Lovu 온재옥, Pepper Land 오혜주, El Garden 수잔 박, 정서영, Patrick Jambon, 박진아, 이주영, 연익, 데이, 황지아 레프</div>	<div><div></div>이것이 Green Undergound 캠페인 by 조은지 5,000/한정판에 성북동에서 열리는 그린 언드그라운드 작업 중의 하나이고 이후도 green underground.</div>
--	---



<div><div></div>Green Underground 캠페인 by 조은지 5,000/한정판에</div>	<div><div></div>이것이 Green Undergound 캠페인 by 조은지 5,000/한정판에 성북동에서 열리는 그린 언드그라운드 작업 중의 하나이고 이후도 green underground.</div>
---	---

<div><div></div>Green Undergound 캠페인 by 조은지 5,000/한정판에</div>	<div><div></div>이것이 Green Undergound 캠페인 by 조은지 5,000/한정판에 성북동에서 열리는 그린 언드그라운드 작업 중의 하나이고 이후도 green underground.</div>
--	---

next show

event

<div><div></div>박원주</div>	<div><div></div>Green Growth</div>
<div><div></div>Wonjoou Park</div>	<div><div></div>Tree</div>
<div><div></div>별매달</div>	<div><div></div>Grass</div>
<div><div></div>Star Delivery</div>	<div><div></div>Peace</div>
<div><div></div>2009. 5.1- 5.30</div>	<div><div></div>Green Union</div>

테이크아웃드로잉, 성북동_키친 오픈
Takeout drawing's three spoons
성북동에서 키친을 오픈 하겠다는 약속을 2006년 5월부터 해왔습니다. 어느새 1년 반이란 시간이 흐른 것은 신선한 계절 유기농 재료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일상적인 손쉬운 재료들로 감각적이고 창의적인데다가 영양적인 균형까지 따질 수 있는 그런 레프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픈 기념으로 10일 동안 매일 다른, 오늘의 메뉴를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몇 가지 대답들을 소개합니다.

three spoons는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음식과 소비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인용이다. three spoons가 의미하는 것은? 2009. 2.19- 2.28 (three spoons from Ono Yoko)



Takeout drawings의 서비스와 맛은 고객이 생각한 것보다 +a인 수준임을 무언 어필하는 이미지만 것 같아요. 3개의 같은 길을 가면서요 미레의 하나 또한 변함없음을…… 정하영

스푼이 네 개인데 왜 제목은 세 개의 스푼일까? 하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 개의 스푼은 요리하는 사람의 몸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요리를 먹는 사람의 선택, 기분, 느낌, 분위기 등등일까? 임옥인

<div><div></div>미스리믹스 Mixrice 이주에 관한 운세과자 Migrant fortune Cooki</div>	<div><div></div>이주에 관한 운세과자 Migrant fortune Cooki</div>
<div><div></div>2008. 12.17- 12.31</div>	<div><div></div></div>

<div><div></div>테이크믹스리믹스</div>	<div><div></div>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div>
--	---

cafe

<div><div></div>New menu</div>	<div><div></div>New menu</div>
<div><div></div>Course Menu for Coffee</div>	<div><div></div>today's organic soup & bread</div>
<div><div></div>커피 코스 10,000 : cafe latte 카페라떼+ espresso 에스프레소 + coffee dessert 에스프레소 젤리 디저트 (새콤달콤한 크림 위에 진한 에스프레소 젤리)</div>	<div><div></div>오늘의 유기농 스프와 빵 10,000/ takeout 9,000</div>
<div><div></div>테이크아웃드로잉 바리스타에 의해 개발된 black map으로 커피 여행을 떠나보세요. 3가지 코스가 훌륭한 조화를 이루어 커피의 즐거운 세계로 안내합니다.</div>	<div><div></div>양송이 포르치니 스프, 호박이 들어간 고구마 스프 등 신선한 오늘의 재료에 따라 준비된 스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치킨육수나 밀가루를 이용하여 양 부플리부를 하지 않고, 원재료가 본질에 100% 충실하게 만드는 영양을 듬뿍 담은 건강 스프입니다. 건강 유기농 빵을 스프와 곁들이 또 다른 맛을 즐겨보시길.</div>

<div><div></div>flan funghi con salad di stagione</div>	<div><div></div>비ết 플란과 계절야채 샐러드 (vegetarian)</div>
<div><div></div>최상급의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포도버섯, 느타리버섯, 파마산 생지즈가루, 국내산 유정란</div>	<div><div></div>organic mixed mushrooms and vegetables, egg, fresh parmesan cheese</div>

쉽히는 맛이 일품인 버섯들과 파마산 생지즈가루, 유기농(유정란) 계란으로 만들어진 오븐에서 중탕으로 익혀낸 요리입니다. 입에서 부드럽게 녹아 내리는 것이 포인트이며, 곁들이내는 우리나라의 유기농 야채들과 칠리리얼 마요네즈소스를 함께 섞어 먹으면 언발산한 플란의 독특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div><div></div>테이크아웃드로잉과의 만남서</div>	<div><div></div>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루어진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일하면서 '새로운 것 없어요?' 라는 끊임없는 질문에 아이디어가 떠올라 참 뜻 이루는 발을 보내고 있다.</div>
--	---

Green Underground 오픈닝
드로잉과 레포는 나의 두근거림이다. 나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내가 상상하고 드로잉하고 메모한 것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음식을 만들다 보면 머리 속 그림이 실제가 되고 드로잉이 음식이 되어버린다. 조은지 작가는 진한, 어두운 녹색 느낌이다. 더구나 작가는 채식주의자다.

<div><div></div>분명히 스푼은 세 개 일거예요. 착시현상으로 내 눈에 4개로 보이는 것일 뿐…_ 박소정</div>	<div><div></div>운세과자는 12월 17일-1월 31일이라는 기간에 테이크아웃드로잉 성북동에서 전시 혹은 판매됩니다.</div>
---	--

따뜻한, 조그만 공동체_김소희
셋이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 사람이 더 왔어요. 그 정도로 맛있다는 이야기_신정영
Takeout Drawing _김필배

실험적이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_김정연
네 캔데 새 캐러니가 재있다. 네 번째 숟가락을 두고 재있는 생각이 많아… 그냥 이런저런. _송혜진
스푼 하나는 건강해질 나를 위해! 다른 스푼은 농산물을 키우는 사람들, 마지막 스푼은 도시의 변화_한선영

타이틀은 3개의 숫자를 가르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4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음식이 나올 때 그 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정성과 재료가 포함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최경찬:
오노요코는 숫자를 셀 줄 몰랐던 게 아닐까요. (3까지 밖에 못 세니까요)_. 김윤진
4라는 숫자는 음식의 맛과 분위기와 유기농 재료를 통한 환경을 통해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하군요_ 김순걸

마지막 스푼은 스푼이 아닙니다. _유영수
미스리믹스 Mixrice 이주에 관한 운세과자 Migrant fortune Cooki
2008. 12.17- 12.31

<div><div></div>테이크믹스리믹스</div>	<div><div></div>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div>
--	---

ps. 전시는 끝났지만, 여전히 이주에 관련된 사연들을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sweetcje@empal.com



<div><div></div>유러한 피아노 음악 중심의 편곡과 가슴을 파고드는 예수 어린 벨로디 동양형 하우스뮤직</div>	<div><div></div>유러한 피아노 음악 중심의 편곡과 가슴을 파고드는 예수 어린 벨로디 동양형 하우스뮤직</div>
<div><div></div>탄테이클 3개를 이용한 화려한 DJ Daishi Dance 의 데뷔앨범.</div>	<div><div></div>유러한 피아노 음악 중심의 편곡과 가슴을 파고드는 예수 어린 벨로디 동양형 하우스뮤직</div>
<div><div></div>Daishi Dance 는 샤프로에서 가장 큰 클럽 Precious Hall의 레지던스 DJ로 활동하면서 라디오에서 정기적으로 음악 믹스 퍼포먼스도 펼치기도 하고 자신의 음악 작업을 꾸준히 해 왔다.</div>	<div><div></div></div>

<div><div></div>발행: 테이크아웃드로잉</div>	<div><div></div>110-809 서울 종로구 동숭동 130-18</div>
<div><div></div>t. 02 747 1318 f. 02 6052 0606</div>	<div><div></div>takeoutdrawing@hanmail.net</div>
<div><div></div>www.takeoutdrawing.com</div>	<div><div></div></div>

<div><div></div>광고</div>	<div><div></div>이미지</div>
<div><div></div>속닥속닥</div>	<div><div></div>www.neolook.com</div>

<div><div></div>배부러 첫 신청안내</div>	<div><div></div>배부러 첫 신청안내</div>
<div><div></div>New update</div>	<div><div></div>디 북스, 아트선재센터 1층 02 733 8949</div>
<div><div></div>최순우 옛집, 성북동 3675 3401</div>	<div><div></div>다른 배부처들은 홈페이지 참고</div>
<div><div></div>문의: takeoutdrawing@hanmail.net</div>	<div><div></div></div>